

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동주거공간’의 기억과 그 의미

—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와 박민규의
「갓을고시원 체류기」를 중심으로 —

김민수*

요약

본 논문에서는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와 박민규의 「갓을고시원 체류기」를 대상으로 1990년대 공동주거공간에서의 체험과 유사한 두 공간의 장소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작품 속 특정한 과거 공간이 어떤 의미로 구축되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에서는 과거의 여관에서의 장기투숙 경험을 현대적 도시생활의 불안과 연결시켜 형상화한다. 주인공에게 있어 ‘경북여관’은 과거에 치유 받은 경험을 했던 상징적 공간이며 내적 성숙을 이룩하게 된 관문으로서 존재한다. 박민규의 「갓을고시원 체류기」에서는 가정의 파괴로 친구 집을 전전하다 결국 고시원으로 향하게 된 주인공이 고시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른으로의 성장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관’과 ‘고시원’이라는 두 공간은 자본주의적 공간의 최소 단위이다. 또한 이 공간은 오늘날 빼곡한 도시 공간에 군집되어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원형으로 가능하다. 주체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거공간으로서의 ‘여관’과 ‘고시원’이라는 표본은 타인과의 분리를 최소화하면서 결코 은밀해지기 어려운 도시생활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

*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다. 또한 ‘공동주거공간’이라는 불안정한 사적 공간을 통해 통과의를 거쳐 성장에 이른다. 이 점에서 공간적 개념을 ‘삶의 서사’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공동거주공간, 김소진, 박민규, 여관, 고시원, 체류, 치유, 성장

목차

1. 문제제기
2. ‘공동주거공간’에서의 체류기억
3. 상징공간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
4. 결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자본주의적 공간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여관’과 ‘고시원’에서의 체류 경험과 그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에 따라 계층화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도시민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허름한 ‘공동주거’의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도시사회의 일부로서 기능하기 위해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사적 영역이 축소되어 있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여관’과 ‘고시원¹⁾’은

1) 고시원을 이용하는 집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수험생이고, 두 번째 집단은 젊은 독신 직장인이고, 세 번째 집단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그리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 등의 도시빈곤층이다. 즉 현재 고시원은 일부 전통적인 빈곤층으로 인식되어 왔던 집단과 노동빈곤층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단신가구 형태를 보이는 도시빈곤층의 불안정한 주거지

정식으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었다.

물론 '공동주거'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표면상으로는 공동거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이룰수록 철저히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사적 공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여관 및 고시원이 지니는 공동거주 공간으로서의 질적 차이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도시사회에서 자본적으로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는 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여관에서의 장기투숙과 달리 아파트는 현대에 이룰수록 '내 집 장만'의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 고시원은 현대에 이르러 '고시텔' 등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시 거주민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장벽의 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통해 사적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관에서의 장기투숙이나 고시원에서의 삶은 현재의 한국사회 대부분의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보다 개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근대적 '공동 거주'의 원형을 이룬다. 공동으로 쓰는 욕실과 화장실, 주방은 가장 최소한의 사적 공간만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하숙집은 주인과 하숙생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으며 철저히 주인집의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생활을 요구받아 통제된다. 반면 여관이나 고시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주인의 생활양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주거공간이 주체가 생활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상적 공간의 기능을 하고

로 자리 잡혔다.(이정봉,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면.)

있다면 특수한 목적을 통해 구축된 장기적 투숙 공간인 ‘여관’과 ‘고시원’이라는 공동주거공간의 개념은 타인과의 분리를 추구하려는 ‘사적 공간’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특성화된다. 학교나 회사에 딸려 있는 기숙사가 한 집단에 공통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특정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곳이라면 여관이나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가 가장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도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여관’이나 ‘고시원’에서의 장기투숙 체험이 90년대 이후에 ‘과거 회상 속의 공간’으로 우리 소설사에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²⁾ 이는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으로서 존재하던 시절과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를 형성하게 되는 과도기적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현대에 이룰수록 1인 가구의 형성 등으로 인해 다가구주택이 대거 공급되면서 장기투숙 이외에도 선택사항이 다양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소재적 측면에서 볼 때 여관이나 고시원에서의 공동거주 체험은 1인 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거 조성되어 있는 현재에 이르면 그만의 독특한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마련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자본의 축적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된 도시민이 더 나은 시설의 공동 거주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 매우 일반화된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닌 과도기적 측면은 다

2) 조세희나 윤홍길의 1970년대 소설, 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이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발 독재 속에서 생겨나는 주거 상실과 박탈의 문제는 도시 공간 속 자신 혹은 자기 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개별적 공간을 욕망하게 만들고, 이는 1980년대에 이르러 개인이 주거 공간을 소유하는 욕망을 뛰어넘어 주거가 생존의 조건이 아닌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자 자본을 만들어내는 욕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러한 욕망은 응집되고 증폭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면 도시자본의 무한한 확장은 한계에 다다른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체의 문제에서 나아가 이미 도시화가 완성된 세계에서 공간을 통한 주체적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그 논의대상을 전환시킨다고 볼 수 있다.

양한 방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관'이나 '고시원'이라는 특정한 용도의 공동거주지에서
의 체험을 통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대
적 감성을 읽어내는 작업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에드워드 랠프는
장소를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이야기
하며 장소는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계로서 존재한다고 말한
다.³⁾ 즉, 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장소들의 집합이 도시 공간을 이루
고 있으며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담론에서 도시 사회상의 일면과
시대적 감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집중하고
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장기투숙 개념으로서의 '여관'과 '고시
원'을 이루고 있는 미시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적 공간은 오늘날 빼곡
한 도시 공간에서 군집되어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원형이다. 근
대 사회에서 도시와 주체의 관계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1996)』
와 박민규의 『잡을고시원 체류기(2004)』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
술되며 '외화-내화-종결외화'라는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 '내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여인숙'과 다름 바 없는 '여관'
과 '고시원'에서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 김소진의 소설 양식이 다소
현재와 과거회상이 교차되는 방식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21세기적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증상을 먼저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취한 소설이라 류보
선⁴⁾이 말했던 것처럼 기민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화를 과거의

3)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4-110면.

4) 류보선, 『열린 사회와 그 '적'들-김소진 소설이 남긴 것과 불러올 것』, 『열린 사
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14, 496면.

특정 공간 체험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⁵⁾ 또한 박민규의 『갑을고시원 체류기』의 경우 역시 ‘여인숙’의 대응으로 쓰이기 시작한 ‘고시원’에서의 경험, 공간 인식을 통해 정착민으로서 성장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도시와 주체의 관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⁶⁾ 이 두 소설작품에 대해 접근할 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작품 속 특정한 과거 공간이 어떤 의미로 구축되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두 작품의 기억 공간 속에서 주인공은 공통적으로 도시에서 정주하고 있으나 가정의 파괴로 안온한 사적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여관’과 ‘고시원’이라는 각 공간의 의미를 상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현재의 공간과 대립된 개념으로 중층된 의미의 과거 공간이 제시되어 주인공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본고는 유사한 두 공간의 장소성⁷⁾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구성되

-
- 5) 김형수, 『정신과 육체의 변증법-김소진의 소설』, 『사람어문연구』 11집,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람어문학회, 1998., 민새은, 『김소진 소설 연구-기억의 서사와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학원 석사논문, 2009., 박혜민, 『김소진 소설 연구: 갈등 및 극복의 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학원 석사논문, 2009. 조명기, 『김소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주변 공간의 로컬리티』 『장석조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12, 293-218면. 이봉일·최현숙, 『김소진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3, 149-170면.
- 6) 심아진, 『박민규 소설의 바로크 현상』, 고려대학교학원 석사논문, 2014. 김동혁, 『박민규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한국문화기술』 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0, 65-87면. 한창식, 『환상소설을 통한 서사 확장의 가능성-북거일, 박민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화회, 2011, 449-484면. 서은경, 『한국의 소비자본주의 시대 개막과 루저들의 탄생-박민규 장편소설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9, 돈암어문학회, 2016, 125-154면.
- 7) 이·푸투안은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이야기한다.(이·푸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24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공간은 물리적인 영역에 지나지 않으나 생물학적 사실에 의해 삶의 총체적 서사를 내포하게 된다는 이-푸투안의 견해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사실로써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최초의 집이라는 의미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면 ‘여관’이나 ‘고시원’에서의 삶은 곧 마당도, “다락방이나 지하실도 지니지 않은 평면체의 주거 공간이라는 아파트에서의 삶”⁸⁾과 같을는지 모르지만, 공동 욕실과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을 통해 삶의 총체적 서사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모호하고도 이질적인 경향을 내포한다.

2. ‘공동주거공간’에서의 체류지역

1) 도시생활의 불안과 여관에서 장기투숙체험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는 지식인인 ‘나’가 현대적 도시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을 대학시절 잠시 머물렀던 경북여관에서의 체험을 회고하는 것을 통해 해소하게 된다는 형식을 취한다. 도입부에서 ‘나’는 ‘소설가이며 번역가이자 기획저술가’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을 밝히고 있으며 그마저도 “이것 말고도 잠깐씩 거쳐간 무슨무슨 에디터 따위의 허드레 직함까지 적어놓자면 자그마한 명함이 온통 깨알만한 글씨로 뒤덮일 판”⁹⁾이라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

8) 손종업,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245면.

9) 김소진, 『경북여관에서 꿈꾸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14, 329면.

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밝히는 것은 서술된 직업의 공통적인 특성, 즉 ‘프리랜서’라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고용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음을 드러냄으로 하여 도시 생활의 불안함의 근원이 불확실한 경제적 소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번역 작업 중 오역 실수를 하여 출판사 사장인 여성에게 망신을 당하고 출간 보류가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추상적 불안감이 아님을 알려준다.

한편 주인공 ‘나’가 지닌 불안감은 도시 공간에서의 생활 그 자체 만으로도 발현된다. 정체가 궁금한 여성이 ‘대문을 맞이한 1704호’에 살고 있으며 아내는 그녀를 불경스럽게 여긴다. ‘나’는 ‘아파트’라는 공동거주 공간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벽 혹은 복도 하나를 마주 놓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나’가 아내와 거주하는 집은 무려 17층이나 되는 고층의 집이다.

나는 틈새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깨를 털며 한바탕 으스스를 쳤다. 당장이라도 아파트가 와그르르 무너져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처럼 지독한 고소공포증 환자가 심찰층이나 되는 고공에서 체류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당찮은 일이었다.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어지럼증 때문에 배란다를 제대로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거기다 틈새까지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차고 오한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소파 깊숙이 몸을 꼭 담갔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발가락들이 배배 꼬여 제멋대로 꿈틀거렸다. 발가락 끝이 주책없이 거실바닥의 과일 접시를 건드리는 바람에 사과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곧이라도 아파트가 뒤틀러서 무너져내릴 것만 같았다. 삼풍! 그래 삼풍 때 어땠지! 생존 공간, 생존 공간이 될 만한 구석이 어딜까? 다용도실일까? 무슨 소리아 심찰층에서 무너져내린다면 모든 게 다 쿡가루가 될 판인데 생존 공간이고 뭐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라구! 나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거실바닥에 개구리

처럼 넘죽 엮드렸다.¹⁰⁾

‘나’에게 있어 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한편으론 ‘고소공포증’과 투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삼풍 때’라는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대식 고층 건물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불안 요소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에서 작동한다. ‘나’는 바로 이러한 불안이 당위성을 획득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사회 영역 안에서의 불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틈새는 균열을 이야기하고 이는 원초적 본능으로 인해 생존 공간을 찾아가게 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자신이 공들인 번역일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여유로울 것이라 예견했던 경제적 상황에도 균열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몇 가지 문제들 중 그가 지니고 있는 원초적 불안은 물론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공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대 사회에서 공간의 불안은 곧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소설의 초반부는 불안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 이는 중반부에서 몇 가지 징후들을 보여줌으로 ‘나’의 불안을 심리적으로 극대화한다. ‘나’는 사회과학 출판사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대학 서클 선배인 ‘현철교’라는 인물의 연락을 받고 나가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본다. ‘신혼 전셋값’ 때문에 집안의 문제가 있었던 그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가 사주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던 ‘나’는 불현 듯 다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에게서 들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주인공 ‘나’를 더욱 숙고하게 만든다. “근데 어떻게 된거야? 내가 부가가치를 챙기려고 들면 저쪽이 못 챙기고, 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로 말

10) 김소진, 앞의 책, 346면.

이야.”¹¹⁾라는 주인공 ‘나’의 생각에서 현실의 자본제적 사회의 모순을 읽을 수 있다. 결국 나는 ‘고부가가치’를 꿈꾸는 현실 세계와 불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가 가져다주는 불안은 곧 정후로 주인공 ‘나’앞에 드러난다. 엘리베이터 고장을 착각하여 ‘눈앞이 캄캄’해지는 체험은 그동안 주인공 ‘나’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공간에 대한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인공 ‘나’는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 ‘목덜미와 뒤통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은 해프닝이었지만 ‘헛갈리는 바람에 앞집 번호판을 늘렸는데 하필 그 번호가 같은 번호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와 비밀번호가 특징하는 현대식 고층 건물의 특징은 기계장치에 의해 사용자의 생활이 제어 받는다는 것이다. 주인공 ‘나’는 문이 열려 들어갔다가 나오다 아내와 마주치고 오해를 사게 되면서 좀도둑 때문에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도시 생활의 불안이 비밀번호로 가로막혀 있는 현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도둑이 다녀갔다는 구체적 정황을 통해 현실의 불안이 사건의 일면으로 드러났을 때 ‘나’는 우연찮은 기회에 주변을 찾았다가 경북여관이 있는 골목을 찾게 된다. 뒤늦게 ‘내화’ 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경북 여관을 찾게 된 배경, 즉 불운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불화와 허름한 자취방에서 ‘회색 파카에 검은 장갑을 낀 사내 둘’에게 끌려가 풀려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세퍼트를 잘 못 먹고 뻗뻗해진 채 방에 누워 있었”던 아버지를 최후까지 부양한 것은 “송탄 양공주촌 옆 시장통에서 막걸리 원내가 풍기는 선술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였고, 그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여동생 경희’는 가출했다. ‘나’는 그런 세상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인물이며 소멸하고 싶을 정도로 세상과 불화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11) 김소진, 앞의 책, 363면.

그러나 나는 세상을 저주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마음을 품진 않았다. 아마 그랬다면 난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다만 조용히 소멸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안 보면 되지 않는가. 내가 세상을 그리고 세상이 나를.¹²⁾

주인공 '나'는 비록 소멸하고 싶을 정도로 세상과 불화하고 있었지만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을 안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미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낸다. '나'는 세상과 불화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올 수 있기에 소멸을 소망할 수 있을지라도 '저주'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나'를 경복여관으로 이끌어주는 '예숙이'는 유일하게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인물이며 '대학 시절 내가 함께 자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유일한 여자'라고 설명되는 존재다. '김은 장갑을 낀 사내들'에게서 풀려난 뒤 돌아온 자취방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따스한 온기와 품아떨어져 있었던 그녀를 발견하였고 그녀는 "돈도 떨어지고 주인도 그만 나가달라는 눈치"라 오갈 데 없어진 '나'를 경복여관으로 이끌어 낸다.

'나'에 의해 "말이 여관이었지 경복여관 시설은 거의 여인숙 수준이었다"고 설명되는 이 공간은 "낮은 텔레비전 한 대, 다리 하나가 기울어진 밥상만한 탁자, 그리고 윤때가 반짝거리는 색동이불 한 채가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며 물론 "세면장이나 화장실은 각 층마다 공동으로 사용"¹³⁾하는 허름한 공간이다. '나'는 얼마 안가 '경복 여관을 숙소로 삼는 창녀'인 미라와 역시 경복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하는 동식을 소개받는다. 예숙이가 남자를 데리고 방에 찾아온 날, '나'는 자리를 피해주러 옥상에 올라갔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모여 있는 장기투숙자들과 만나게 된다.

12) 김소진, 앞의 책, 375면.

13) 김소진, 앞의 책, 381면.

한번 읽어보시겠수?

경, 복, 여, 관……

입으론 그렇게 읽었지만 한자가 좀 색달랐다. 고래 경鯨자에 배 복腹자였다.

고래 뱃속!

후후, 맞췄군요, 여기가 바로 뱃속, 고래 뱃속이지. 세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고래 뱃속이라우. 커어, 우리는 삼켜졌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버리지 않았으니…… 1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좀처럼 파악할 수 없었던 경북여관의 정체는 장기투숙자의 입에 의해 형상화된다. 여관에서 살아가는 장기투숙자가 지니는 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고래 뱃속’에 삼켜졌다는 문학적 수사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경북여관은 ‘뒤가 켜기는 사람들’이 주로 기거하는 공간이다. ‘나’는 그들과 분리되어 철저히 개인으로 존재함으로써 여관의 사용자들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삼켜지고 세상에 버려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고래’는 세상을 의미하며 결국 거대한 도시 전체를 이루고 있는 표현임을 깨닫게 한다. 결국 ‘나’가 삼켜진 것과 다름없이 도시의 중심부에서 쫓겨나 고래 뱃속과도 같은 경북여관에 이르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던 셈이다.

관찰자로서 존재하던 ‘나’가 ‘관계맺기’를 시도하였던 것은 예숙이가 아닌 미라였다. 예숙이는 소설 속 화자의 진술에 의하면 “중산층 출신들한테 종종 풍기는 삶에 대한 넉넉하고 천진난만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꿈속에서조차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이다. 불행했던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있어 그녀는 동경의 대상임과 동시에 유일하게 욕망하는 대상이었으며 결국 시대와의 불

14) 김소진, 앞의 책, 385-386면.

화를 촉진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존재다. '나'의 불화가 해결되려면 '가정환경 변화'나 '그녀의 변화'를 통해 나를 둘러싼 세계관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나의 변화'를 통해 의식 속에 내재된 상처를 치유하고자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제 비상계단을 통해 경복여관에서 가장 깊은 곳인 미라의 지하 방에서 '나'는 미라와 몸을 섞는 기회를 가진다. 관계가 끝나고 가물 가물한 의식으로 어머니와 예숙을 비롯한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잠든 '나'는 '깜깜한 통로를 지나 고래 뱃속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는 꿈을 꾸게 된다. 이는 '관계맺기'를 통해 가정, 운동권 등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었던 '나'가 결국 경복여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치유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치유 받았음을 깨달은 '나'의 기억은 장렬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존재인 과거의 '나'라는 불안한 존재는 현실세계에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불안감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 즉 공간의 붕괴 등에서 오는 복합적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된다. 결국 '나'는 다시 한 번 경복여관의 허름한 입구를 다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치유 받는 체험을 하는 데는 실패한다. 시대 상황부터 도시 공간에서의 나의 사회적 위치, 여인숙 수준이던 여관의 외벽까지 대부분의 것은 달라져 있다. 그러나 '나'가 다시 한 번 경복여관에서 잠을 청하길 꿈꾸었던 것은 결국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자기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현실인식이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나'의 원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경복여관'에서의 기억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주인공 '나'에게 더 이상 현실과 불화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며 새로운 '경복여관'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불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어찌 새로운 절망의 시작이 아닐 수 있으랴!”¹⁵⁾는 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현실 세계에 순응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화’도 ‘화목’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절망의 시작’으로 여겨지게 된다. 즉 정당한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서 만족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화목과 불화의 경계는 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쇠잔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을 통해 오로지 투자 대비 이익추구만이 명분이 되는 자본제적 시스템의 불안 증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복여관’이라는 요나(Jonah)적 공간, 즉 주인공 ‘나’가 가정환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안온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예기치 못한 공간에서의 체험을 다시 한 번 갈구하는 것은 견고해보이나 균열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에서는 좀처럼 ‘생존공간’으로 파고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결국 다시는 ‘경복여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함으로써 어머니의 태반(胎盤)과도 같았던 상징적 공간으로의 도피가 아닌 불안함과 편안함이 동반된 삶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응하려는 주인공 ‘나’의 주체상이 비로소 확립된다고 볼 수 있다.

2) 성장을 위한 통과제의와 고시원체험

박민규의 『갑을고시원 체류기』는 여인숙의 대응을 하기 시작한 고시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이미 그 무렵부터 세상의 고시원들이 여인숙의 대응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¹⁶⁾이

15) 김소진, 앞의 책, 392면.

16) 박민규, 『갑을고시원 체류기』,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278면.

라는 서술은 '시설은 거의 여인숙 수준'이었다는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와 마찬가지로 '여인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능을 하는 공동주거 공간을 전제로 한다. 다만 『경북여관에서 꿈꾸기』는 여인숙을 여관보다 낙후된 개념의 숙소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지만 『갑을고시원 체류기』에서는 고시원이 이미 '여인숙의 대응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느닷없이 선언함으로써 여인숙이란 오갈데 없는 하층민들의 숙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 고시원이 그 대응이 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그러면서 다른 이름의 두 가지 숙소는 모두 공통된 역할을 지닌 공간으로 존재한다.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1991년은 -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갖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라는 설명을 통해 그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갑을고시원 체류기』의 주인공 '나'는 갑자기 여러 불행한 일들을 통해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친구의 집을 전전하게 된다. 가족이 해체되고 '나'가 보게 된 것은 미시적으로 드러난 세상(외부)의 차가운 일면이며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자화상(내부)이다. '나'에게 있어 외부의 발견은 "어느 날 친구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으려는데 유독 나만 계란후라이가 빠져 있음"을 발견한 날 시작된다. 구체적 언급 대신 식사를 하고 일어서다 발견한 '두 판의 계란'과 '친구의 여동생'이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는 친구 집을 나와서 스스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대신 설명해준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요인을 구분하게 된다. 갈 곳이 없어 '생활정보지'를 들고 올라간 도서관 앞에는 '두 마리의 배추흰나비'가 날고 있었고, 이는 곧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여학생, 〈셰익스피어〉와 〈사진예술의 이해〉를 읽고 있는 여학생의 장면으로 교차되며, 내부의 나는 한 마리의 달팽이로 묘사되어 생활정보지의 곳을 기어 다닌다. '나'는 곧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봄별의 따뜻함'을 통해 흘려버린다.

『갑을고시원 체류기』의 표층적 서사는 '나'가 친구 집을 나와 고시원으로 이사하여 적응한다는 것이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심경으로 '나'가 찾은 고시원은 '기차놀이 하듯' 일렬로 걸어야 하는 복도와 '관(棺)'이라고 불려야 할 사이즈의 방이 존재하는 공간이었고, 그 구성원들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인간들"¹⁷⁾로 채워져 있었다.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왠지 생각에 잠겨보지도 않은 채 덜컥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투였다. 듣는 사람에 따라, 또 새겨들기에 따라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서러움이 북받치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서럽지 않고 대신

외로웠다.¹⁸⁾

고시원 입주를 위한 짐을 나르면서 '나'에게 친구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사적공간이 될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라는 외부의 시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친구가 지칭하는 '여기'는 곧 '사람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공간' 혹은 '사람답게 살 수 없을지 모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도시민에게 거주 공간은 곧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으로 양분되어 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다운 삶'에 의 주체적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욕망의 좌절

17) 박민규, 앞의 책, 288면.

18) 박민규, 앞의 책, 282면.

은 현실 조건을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외롭다는 감정의 인식으로 전이된다. 그것은 앞서 도서관에서 생활정보지를 들고 있다가 여학생 무리를 마주쳤을 때 느꼈던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나'는 외로움이라는 "뜻밖의 감정"을 통해 통과제이의 예비과정을 마친다. '나'의 경우 최초 불가항력적 일들을 맞음으로 가정과 분리되어 마침내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신세를 통해 분리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고시원으로 내면 공간이 재구축되면서 의식적 전이를 경험하게 된 셈이다. 고시원 입주와 동시에 최초로 느끼게 된 '외롭다'는 감정의 인식은 결국 의식적 전이의 산물이다. 즉 '외로움'은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본의 문제와 그로인한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고립감의 정서적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과는 다른 상황, 다른 세계(성장)로 나아가는 통과제이를 완성케 하는 것은 고시원의 생활을 극복해 나아감으로 통과제이를 완수하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의 견제자로 등장하는 것이 김검사라는 주변인물이다. 김검사는 나와 유일하게 대립하는 인물로 '갑을고시원'의 최후의 고시생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날 이후, 1센티 두께의 베니어판을 사이에 둔 나와 <김검사>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정말이지, 동거가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 쪽에서도 책상을 구르는 볼펜의 소리라든지, 또 훌쩍 코를 들이켜는 소리 같은 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끔 미치도록 <쟁쟁쟁>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무섭게 충혈된 작은 눈을 떠올리며 꿀꺽 침을 삼키고는 했다. 나는 점점 조용한 인간이 되어갔다.¹⁹⁾

19) 박민규, 앞의 책, 285면.

‘나’와 대립하게 되는 ‘김검사’는 사회적 지위를 욕망하는 존재이다. 그를 부르는 호칭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깃들여 있다. 그러나 ‘검사’가 되기 위한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김검사’는 결국 임차인의 신분으로 고시원에 남아있다.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사적 활동이 최대한 제한되는 곳이었다. ‘1센터 두께의 베니어 판’이라는 재질을 사이에 둔 각자는 결국 사적 공간을 따로 소유한 것이 아닌 유사 동거의 형태를 띠고서 생활하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사적 공간의 소유와 활용을 포기한 채 조용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다. 즉 조용한 인간으로서 관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통합의례의 한 과정으로서 고시원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절차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는 결국 주인공으로 하여금 최대관문을 통과하게 만들어 성장에 이르기를 주문한다. ‘나’는 어느 날 군 입대를 앞둔 동기의 송별회를 꽤 늦은 밤까지 보내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다 묘령의 여자 앞에서 ‘김검사’가 흐느끼는 것을 목격한다. 그날 밤 의도치 않게 소음을 내고 만 ‘나’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던 김검사가 찾아와 상기된 얼굴로 휴지를 청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휴지를 말아준 채 복도를 빠져나가는 김검사를 바라보면서
 - 나는 웃음이 나오거나, 슬프거나, 어떤 비애를 느끼기보다는
 - 외로웠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의 문이 급하게 개폐(開閉)되는 소리가 들렸고, <쟁쟁쟁> 뭔가 아주 작은 소리의 음악 같은 것이 - 삼투압에 의해, 화장실의 세포막을 넘어- 내 귀까지 스며들었다. 문을 닫았다.²⁰⁾

20) 박민규, 앞의 책, 298면.

'나'는 누구나 사적 공간의 형태로서 밀실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완벽하게 차단된 밀실일 수 없는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서술자의 서술과는 모순된다. 다만 인간적 슬픔까지도 숨기기 어렵고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생리현상까지 공유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숙명은 서술자를 성장에 이르게 한다. 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김검사'와 소통하게 되는 지점은 원초적 욕망인 '배설 행위' 때문이다. 이러한 원초적 욕망이 빚어낸 억지스러운 소통 앞에서 '나'가 또 다시 느끼게 된 외로운 감정은 결국 '슬프다'는 감정이 지배적인 와중에도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근본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발현된다.

이후로 '나'는 '갑을고시원'에서 일 년 반의 시간을 더 보내는 동안 가정의 해체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던 '빛'의 존재가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생각"²¹⁾이 들었던 '나'의 진술은 결국 성장의 단계에 무사히 이르렀음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다고 짧막하게 결론짓는 '나'의 태도는 '갑을고시원'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과 이를 빠져나오는 경험이 삶과 그것에 대응하는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음을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인생이란 거듭된 낙방을 통해 실패하기도, 사기를 친 아버지의 친동생이 붙잡히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는 전제는 결국 작품의 결론에서 사회전체를 "거대한 밀실"²²⁾이라 정의하는 것을 통해 작은 방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주거공간으로서의 고시원이 이 사회 전체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같은 흐름은 "과연 인생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었다"²³⁾고

21) 박민규, 앞의 책, 301면.

22) 박민규, 앞의 책, 304면.

회고할 수 있게 된 ‘나’의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세계관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갑을고시원’을 찾게 될 다음 사람의 차례를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누구에게나 ‘고시’보다 힘든 인생에서 “비록 웅크린 채라 하더라도” 무사히 ‘성장’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상징공간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

도시 공간의 거주민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요소들은 불안전했던 주체의 결핍을 해소하고 마침내 치유에 이르렀던 경험을 호출하게 된다. 공간은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경복여관에서 꿈꾸기』의 ‘나’가 다시 한 번 경복여관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갑을고시원 체류기』에서의 ‘나’가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호오관념을 표시하는 것도 그렇다. ‘그곳’이라고 지칭되는 것에서부터 현재 ‘나’로부터의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지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낸다. 결국 자기중심적 해석에 의한 시공간적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친밀감을 함께 드러내는 복합성을 통해 특정한 공간을 조직해낸다. 따라서 공간은 특정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여 결국 내재된 정서가 발현되는 상징적인 ‘장소’²⁴⁾로 환원된다.

도시 공간에서 ‘경복여관’과 ‘갑을고시원’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앞서 살펴 본 두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창문 없는 방과 옆방의 소음 등 사용자가 공간을 통

23) 박민규, 앞의 책, 302면.

24) 이-푸투안은 미학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사건들이 언젠가는 장소에 대한 강한 정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이-푸투안, 앞의 책, 230면.)

해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역시 불가피한 외부 환경이 다수를 차지한다. 발터 벤야민은 '개인에게 있어 실내는 우주 그 자체이다'²⁵⁾라는 말을 통해 무한정의 범위로 실내 공간이 지니는 가치를 확장시켰다. 모든 이들은 '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 자아를 실현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관이나 고시원 내의 사적 공간은 우주 그 자체를 떠올리기 어렵다. 오히려 외부의 간섭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非사적 공간을 구현하여 그 안에서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성장에 이르고 소외와 고독에서 해방된 모습을 표면에 드러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을고시원 체류기』에서의 화자는 자신이 지닌 근원적 질문이었던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는 명제를 '인생을 사는 것이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글귀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의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考試)와 같은 것이 아닐까'하는 물음을 내면에 던짐으로써 귀결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가고 그것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는 연역법적 결론이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나'라는 주체 앞에 주어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사적 공간으로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고시원의 공간이 화자에게 있어 방대하고도 추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우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에서의 현실의 '나'는 아내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고소공포증을 안고도 십칠 층에서 살고, 아내에게 전달해야 하는 최신타 '원격시동장치'를 다시 찾아간 경북여관에 두고 나오면서 아내의 사랑을 재확인 받는다. 그는 '이미 치유에 이른 자신'이 더 이상 불화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즉 다시 경북여관에 가더라

25)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2005, 124면.

도 고래 뱃속을 빠져나오는 꿈을 꿀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과거의 자신 역시 '세상과의 화목을 목마르게 꿈꾸었'던 사람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불화했던 '나'가 이제 더 이상 불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더 이상의 불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끝에서 새로운 절망의 시작을 목격하게 된다. 양쪽 모두 공교롭게도 막다른 길 혹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되던 공간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어른으로의 성장을 맛보게 된 셈이다.

이푸투안은 장소감과 과거의 느낌을 환기시키는 노력은 종종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라고 말한다.²⁶⁾ “낮설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추상적 공간>이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된다는 것”²⁷⁾은 곧 성장 이전의 막연하고 관념적이며 비자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여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추동하려는 세계관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곧 통과이례라는 성장과정을 거친다는 유사한 서사를 지닌 인물이 지나간 일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장소성에 대한 특정한 의미부여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양 작품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과 주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거공간으로 진입하게 된 등장인물이 특정한 체험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1990년대 도시생활의 불안이 가져오는 증상들이 주

26) 이-푸투안, 앞의 책, 316면.

27) 이-푸투안, 앞의 책, 318면.

거공간과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설 속에서 근대적 도시공간에서 표류하게 된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도시 생활을 내면화하였다. 또한 자신이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를 거친 공간을 특정한 상징공간으로 제시하면서 “무력하고 텅 빈 곳”²⁸⁾에 지나지 않는 도시 어딘가의 공간을 ‘성장과 치유의 관문’으로 인식하고 의미화하였다. 그러나 주체가 특정 공간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의미생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특정한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주체가 자아실현과 성장을 통해 생산해내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와 『갓을고시원 체류기』에 드러나 있는 공동주거공간 체험의 의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에서 볼 수 있는 도시 공간은 생활 그 자체에서 주체의 불안의식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1990년대 모더니티의 문제적 증상을 볼 수 있다. 도시를 향한 주체의 ‘낙오자’로서의 시선은 단지 도시생활의 소외가 경제적 욕망의 좌절에서 야기될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집단적 이상과의 괴리를 통해 현대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더불어 각종 첨단 기계장치의 제어에 의해 사용자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거대한 고층 아파트에서 생존 공간을 모색하여야 할 만큼 불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현대성이 지니는 본질적 모순에 대한 중요한 암시로 다가온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지식인의 현실순응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허름한 ‘경북여관’을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1990년대의 현대성 앞에서 화자의 저항양태는 유희적이면서도 무력하다. 이는 『갓을고시원 체류기』에서의 화자가 ‘갓을고시원’을

28) 스티븐 건, 박성관 옮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381면.

회상하며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것에 현재의 자신을 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통해 현실과 과거의 분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결국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에서 화자는 옛 공간을 다시 한 번 찾아가서야 획득하게 된 현실인식을 통해 “더 이상 불화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는 또 다른 심리적 고립을 야기한다.

『갯을고시원 체류기』에서의 화자는 내면과 고시원이라는 외부를 대립하여 표상하였다. 내면이 배타적이며 차가운 도시 공간과 타협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면 외부는 끊임없이 화자의 사적 영역에 침투하여 화자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모종의 깨달음을 통해 성장에 이르게 한다. 또한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슬픔을 뒤로 미뤄야 하는 일상성과 그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동주거공간의 성격은 결국 인간애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내밀화된 공동주거공간의 본질적 특성을 부각시켜 결코 은밀해지기 어려운 도시생활의 일반적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에서의 화자가 결국 ‘도시에서 살아남기’라는 근대적 과제를 개인에게 투영한다면 『갯을고시원 체류기』의 화자에 이르면 ‘거대한 밀실’로 표상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가 돌아와 잠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제의식을 확장한다. 그런 면에서 ‘여관’과 ‘고시원’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소외된 도시민의 삶과 그들의 좌절이 개인의 능력에 한정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현재의 사회상, 1인 가구의 확산과 각종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등으로 증식한 동일한 ‘경북여관’ 및 ‘갯을고시원’들의 분포와 그곳에서의 거주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 또 그 고독한 혼자로서의 삶이 지닌 몇 가지의 병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될지는 알 수 없다. 보다 개념화된 차원에서의 1990년대 소설을 읽어 내려가는 작업이나 우리 소설사에서 ‘공동주거공간’의 문학적 형상화를 맥락화하여

계보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향후의 연구과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여관'과 '고시원'이라는 불안정한 사적공간이 지니고 있었던 힘을 통해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공간적 개념이 '삶의 서사'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보잘 것 없는 공간에서 시작된 도시민의 불안과 동거하는 삶을 긍정하게 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주체적 삶의 의미를 생성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김소진의 『경북여관에서 꿈꾸기』와 박민규의 『갑을고시원 체류기』는 과거회상의 서사구현 방식을 통해 현재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형상화 하였고 이를 통해 당대적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체험을 긍정적 기억으로 환기시키는 이 작품의 외양이 숨기고 있는 실질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소진, 『경복여관에서 꿈꾸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14.
박민규, 『갑을고시원 체류기』,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2. 논문

- 류보선, 『‘열린 사회’와 그 ‘적’들-김소진 소설이 남긴 것과 불러올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문학동네, 2014, 495-526면.
손중엽,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243-264면.
이정봉,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명기, 『김소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주변 공간의 로컬리티 『장석조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12, 293-218면.
한창석, 『환상소설을 통한 서사 확장의 가능성-복거일, 박민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449-484면.

3. 단행본

-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스티븐 건, 박성관 옮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2005.
이-푸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Abstract>

The Memory and Meaning of Co-residential
Space Appearing in the Novels in 1990s
—Focusing on Kim So-jin's 『Dreaming in
Gyeongbok Inn』 and Park Min-gyu's 『Staying at
Gap-eul Goshiwon』—

Kim, Min-Su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what meaning the specific space of the work in the past is constructed in by looking at how the two-dimensional placeness, similar to experience, was constructed in the co-residential space in the 1990s with a focus on Kim So-jin's 『Dreaming in Gyeongbok Inn』 and Park Min-gyu's 『Staying at Gap-eul Goshiwon』. Kim So-jin's 『Dreaming in Gyeongbok Inn』 portrays the long-term stay experience in an inn in the past in connection with the anxiety of modern urban life. For the main character, ‘Gyeongbok Inn’ is a symbolic space that has experienced healing in the past and exists as a gateway to achieve inner maturity. In Park Min-gyu's 『Staying at Gap-eul Goshiwon』, the destruction of the main character's family leads to rolling about a friend's house, and the main character heads for Goshiwon in the end, elaborating a story of reaching the growth of adults based on the experience at Goshiwon. The two spaces such as ‘inn’ and ‘Goshiwon’ are the minimum units of capitalist space. This space also serves as a prototype of a multi-family housing that is



clustered in a contemporary urban space. The specimens of ‘inn’ and ‘Goshiwon’ as residential spaces sho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rban life, which is difficult to keep secret, while minimizing the separation from others in that the subject functions to make everyday life possible.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patial concept to ‘narrative of life’ in that it reaches growth through passage ceremony through unstable private space called ‘co-residential space’.

Key words: Common residential room, Kim So-Jin, Park Min-gyu, inn, Goshiwon, Sojourn, Healing narrative, Growth

투 고 일 : 2018년 6월 7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